

산사태보다 위험한 ‘땅밀림 현상’ 지난해 전남 837건 감지

위험 경고 전국 28%…심각 106건
원격감시 시스템 전국 43곳 운영
예측 정확도 높이고 대피체계 구축

땅 전체가 주저앉는 땅밀림 현상이 지난해 전남에서만 837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지산기술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8개월간 전남지역 땅밀림 무인원격감시 기기 4곳에서 관측된 땅밀림 위험 경고는 837건으로, 전국(2984건)의 28%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4개 군에서만 하루 3건의 땅밀림 경고음이 울린 셈이다.

이 가운데 심각 수준은 106건으로, 전국 심각 수준(430건) 경고 4건 중 1건꼴로 발생했다. 이어 경계 31건, 주의 40건 등의 경고음이 울렸다. 땅밀림의 초기 징후나 미세한 변화가 꾸준히 감지되고 있음을 뜻하는 관심 수준은 660건에 달했다.

전남지역에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 시스템은 지난해 2019년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화순군 동면 북암리,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등 4곳에 설치됐다.

무인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첫해인 2018년에는 포항시와 사천시, 합천군 등 경북·경남 지역에 설치가 몰렸지만, 이듬해부터는 전남과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됐다. 이 기기는 땅밀림 우려 지역 가운데 도로와 다중이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전국에 43곳 운영되고 있다.

땅밀림은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땅이 원형 그대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을 말하며, 산비탈이나 비탈면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밀리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알아보기 어려워 산 전체가 주저앉거나 도로와 건물이 붕괴하는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 변화가 발생하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담당자 현장 확인과 주민 대피 등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무인원격감시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담양의 경우 땅밀림 경보가 울리면서 지자체는 대피 권고를 내리고 계곡부에 쓰러진 나무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에 땅밀림 현상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계측 기기별로 보면 담양에서는 땅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와이어선측계에서 148건의 경고가 발생했다. 땅속 깊은 곳의 변위를 측정하는 지중경사계(담양 211건·화순 196건), 지표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변위계(담양 178건·장흥 5건·해남 2건), 구조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구조물변위계(해남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이상 기후로 인해 산사태보다 위험하다는 땅밀림 재해가 커지고 있다”며 “땅밀림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대피 체계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복합재난 대응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복합재난 대응훈련이 20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 놀이 전수관에서 열렸다. 119소방구조구급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긴급하게 구조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공공·생활권에서 AI 체감… ‘AI 실증도시 광주’ 위상 굳힌다

창업기업제품 지원사업 등 지원…스킨케어·심리상담·보행안전 등 밀접

광주시가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실증을 도심 곳곳에서 확장하고 있다.

기업의 신기술을 시민 체험 서비스로 연결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AI 실증도시 광주’의 위상을 굳힌다는 구상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45개사와 ‘AI 실증’ 4개사를 뽑아 사업화를 지원했고, 별도로 22개사와는 공공·생활권 공간을 연계한 현장 실증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공원과 공공청사 등 3300여 곳의 공공 실증자원을 확보해 기업이 다양한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하도록 개방했고, 결과는 즉시 서비스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지게 설계했다. 연간 35억원 규모로 조성된 예산은 도시문제 해결형 AI 과제와 창업기업 실증에 집중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험 기반 서비스다. 시청 1층 열린공간은 시민이 AI를 직접 써보는 상설 체험장으로 바뀌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창업진흥센터 입주기업인 닥터케이헬스케어는 특수 렌즈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AI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 기기’를 실증 중이다. 방문자는 피부 상태를 정밀 분석 받고 개인별 관리 솔루션을 안내받는다.

교통안전 실증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전략과 맞물린다.

동구 금남로 창업캠프 입주기업 에이치인텔리전스는 북구 서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물지능형 감지센서와 대형 LED 패널을 결합한 ‘사각지대 스마트 아이’를 시험 중이다.

광주가 지향하는 실증 모델은 “빠른 도입-짧은 피드백-즉시 개선”의 순환체계다.

시민 체험에서 드러난 오류와 요구를 제품 업데이트에 반영하고, 현장 데이터는 신뢰성 검증과 공공조달 연계의 근거가 된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AI가 큰 규모를 넘어 생활의 문제를 풀어주는 순간, 시민 체감이 곧 도시 경쟁력이 된다”며 “기업의 기술이 시민 곁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실증 생태계를 더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반려동물 장례비 최대 50% 즉시 감면

하늘정원과 장례문화 상생 협약

광주시가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비 감면을 상시화한다.

광주시는 지역 장묘업체 ㈜하늘정원과 협약을 맺고 시민에게는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50%까지 비용을 낮춘다.

이번 감면은 11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현장에서 체결된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조치다.

적용 범위는 동물 화장과 염습, 추모예식 등 핵심 절차로 한정해 실질 부담을 낮추고, 관·수의·유

골함 등 선택 품목은 별도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투명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단계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광주시민임을 확인하면 기본 감면이 적용되고, 사회적 배려계층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면 50% 감면이 즉시 반영된다.

시는 표준화된 서비스 범위와 감면 기준을 병행해 과다 청구를 예방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상실의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례서비스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아이디팜 등 3곳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전남도가 농업회사 (주)아이디팜 등 3곳을 올해 신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나주의 (주)아이디팜은 고품질 농작물 전문 유통업체이며, 곡성 ㈜그린산업개발은 친환경 건축자재와 조경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고흥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은성환경(주)도 신규 지정됐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대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근로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전국 7곳…2년간 월 15만원 지급

내년부터 2년간 신안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신안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직변경 공고

주식회사 인후메디는 2025년 10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제 287조의43에 따라 총주주 동의로 유한책임회사 인후메디로의 조직변경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에 조직변경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의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의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주식회사 인후메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3-9, 에이동 104호(월계동)
대표이사 장영주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최고,
대지 848.5㎡ 건물 3,846㎡
(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과,약국,성형중)

**현재 월 3천 1백, 수익률 7%
매 69억 9천. 인수가 17억**

군산중심대로, 롯데마트 앞.

주인직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